

KOSPI 사상 최고치 돌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시장 전망 : 2차 상승추세 시작. KOSPI 연내 2,600p 돌파시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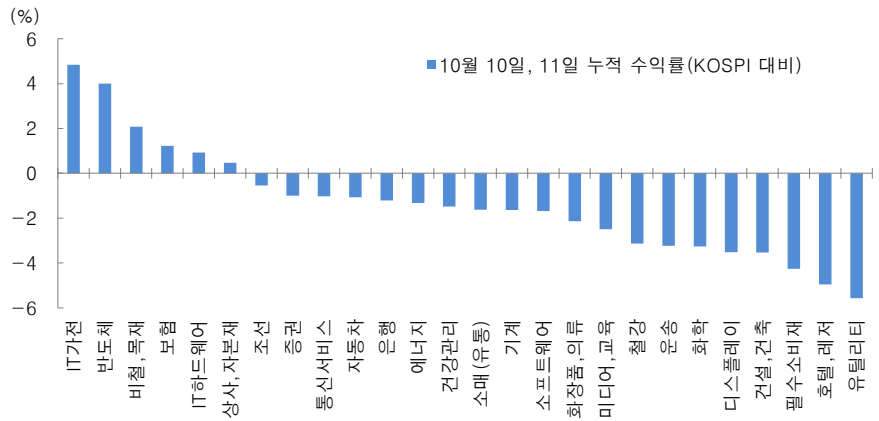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10월 11일 KOSPI는 2,458.16p로 장을 마쳤다. 7월 24일(2,451.53p) 이후 두달 보름여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번에도 주역은 IT 강세와 외국인 순매수였다.
- 필자는 KOSPI 사상 최고치 돌파가 새로운 시작, 2차 상승추세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매크로 환경이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에 우호적인 상황이고,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높다. 현재 KOSPI의 12개월 Fwd PER은 9.35배에 불과하다(7월 24일 9.76배). 단기적으로 KOSPI 2,500p(12개월 Fwd PER 9.5배), 연말까지 2,600p 돌파시도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 북한발 리스크와 미국의 통상압력 부담에 단기 매물소화과정이 나타난다면, KOSPI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심리적/수급적 교란요인보다는 경기/실적이라는 펀더멘털 동력과 정책(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육성정책)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말 배당확대 기대감과 스튜어디쉽 코드 도입 이슈가 맞물리며 KOSPI 디스카운트 완화 /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다.

투자전략 : IT, 정책 수혜주 비중확대 전략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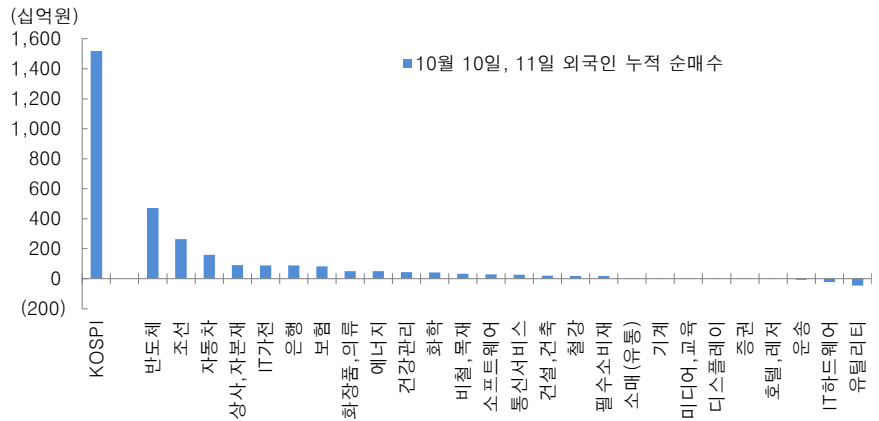
- 주도주는 역시 IT이다. 1)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에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과 2)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와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 육성정책이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3) 연말까지 실적이 레벨업되고, KOSPI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 통상압력에서 한 발 빗겨나 있다는 점도 상대적 매력을 높일 것이다. 5) IT의 12개월 Fwd PER은 8.5배 수준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J노믹스 수혜주(제약/바이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도 IT와 함께 KOSPI 2차 상승추세에 중심에 위치할 전망이다. 전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첫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정부의 핵심 전략인 혁신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을 천명한 만큼 연말까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육성정책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구체화될 예정이다.
- 단기적으로 주목할 업종은 자동차/부품이다. 미국 통상압력 강화, 한미 FTA 개정협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 추석 연휴 이후 반등세를 기록 중이다. 자동차/부품 중장기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기술적 반등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KOSPI 반등탄력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림 1. KOSPI 사상 최고치 경신을 주도한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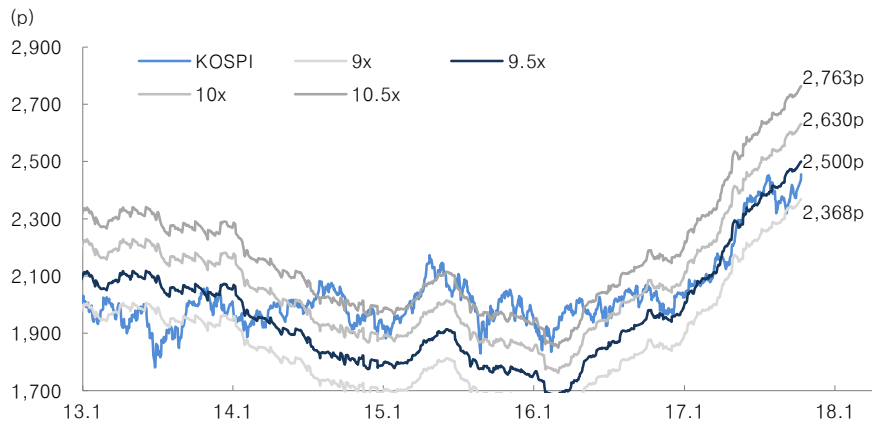
자료: Wisei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2. 외국인 순매수, IT(특히, 반도체) 업종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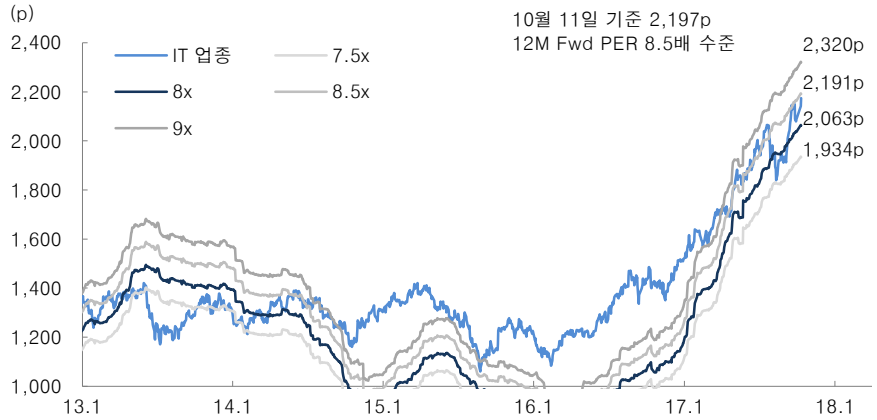
자료: Wisei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3. KOSPI 고점은 높아졌지만, 12개월 Fwd PER은 9.35배에 불과
직전 고점(12M Fwd PER 9.76배)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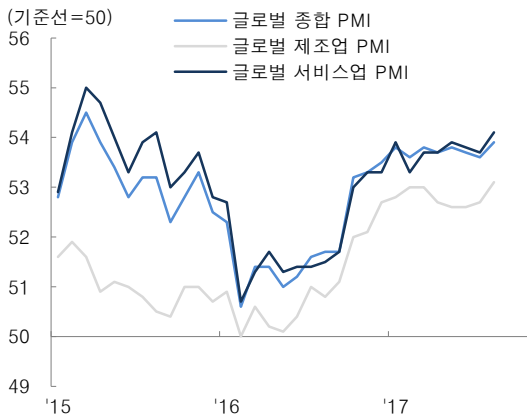
자료: Wisei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4. IT 12개월 Fwd PER은 8.5배 수준.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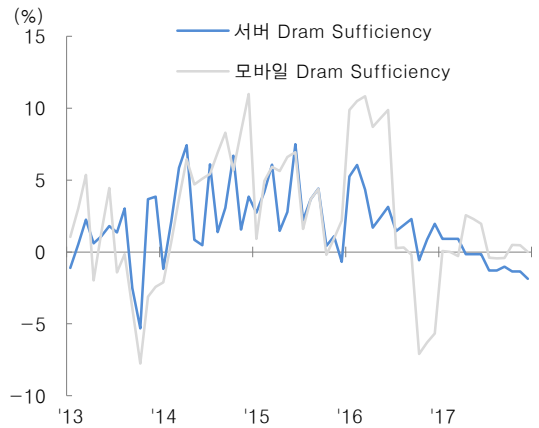
자료: Wisei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5.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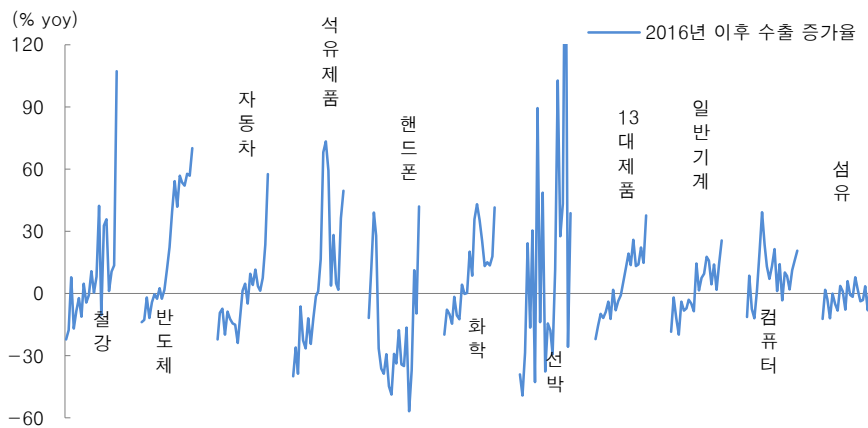
자료: JP모건,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6. 4/4분기 반도체 초과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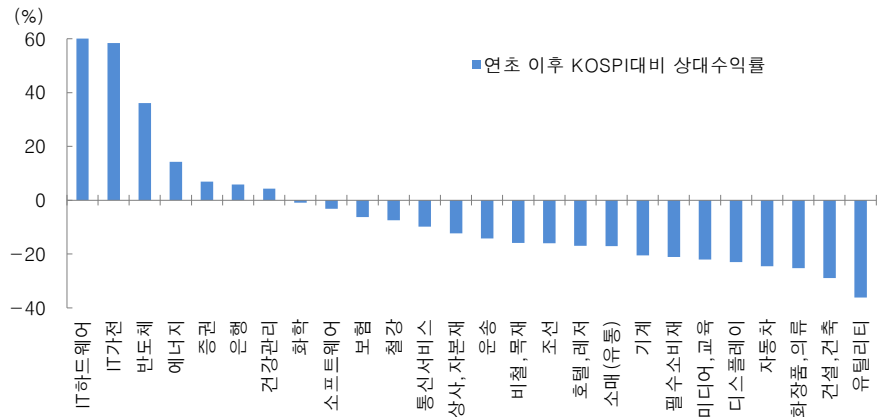
자료: DRAMexchang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7. 한국 9월 수출, 551억 달러로 사상최대치 기록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력 수출품들의 동반 개선세 뚜렷**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8. 연초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드관련주 / 내수주의 반등시도 가능성



자료: Wisei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그림 9. 기술적 반등 시도에 나선 자동차/부품. 12개월 Fwd PER 7.2배 수준



자료: Wisein,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 Strategy 본부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